



에너지관리공단 강원규 저탄소에너지기반본부장

# ESCO사업의 도약을 준비하다

에너지관리공단 저탄소에너지기반 본부장으로 취임한 지 1년. 강원규 본부장의 지난 1년은 에너지절약과 ESCO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애쓴 시간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을 대신한 선풍기 한 대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있었다. 성실함과 열정으로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강원규 본부장의 얘기를 들어 보았다. 글 편집팀 사진 최미연

##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에너지관리공단 저탄소에너지기반본부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흐른 지금, 강원규 본부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한결 같은 성실함과 책임감이다. 에너지효율을 위해 늘 노력해왔지만 강 본부장의 이러한 열정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 일화 중 하나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멀티히트펌프시스템(EHP)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화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과연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주위의 우려가 많았지만 강 본부장의 일에 대한 결단과 추진력으로 내년부터 도입이 확정되었다.

강 본부장은 국내 ESCO시장의 전망과 관련하여 ESCO사업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추진에 관한 규정이 올 해 7월 26일에 제정된 것은 앞으로 ESCO시장 창출과 ESCO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얘기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추진에 관한 규정이 올 해 7월 26일에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연면적 1만㎡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5년마다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결과 에너지절감효과 5%, 투자비 회수기간 10년 이하인 경우 진단 후 2년 이내에 ESCO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SCO기업은 기술력 축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에너지 절감량 측정 및 검증 기법을 개발하여 에너지 사용자에게 신뢰를 주고 투명하게 ESCO사업을 추진하면 ESCO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ESCO사업의 변화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

2013년부터 성과배분계약에는 ESCO정책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성과보증제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 본부장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ESCO업계에 일

## ESCO사업의 변화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

어날 것임을 지적하며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계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절감량 보증개념이 포함된 신성과배분계약 및 성과보증계약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ESCO업계의 기술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과배분계약과 성과보증계약은 ESCO기업이 의무적으로 에너지절감효과에 대해서 보증을 해야 하며, 에너지절감효과를 지속적으로 측정, 보고,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력이 없으면 ESCO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ESCO사업이 추진된다면,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자체자금 또는 민간자금 등의 다양한 자금이 활용되어 ESCO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강본부장은 ESCO인력 운용과 ESCO인력의 재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ESCO인력의 교육 또한 활성화되기 위해 협회와 공동으로 MRV관련 교육실시 등을 위해 힘을 쏟고 있음을 얘기했다. 올해 6월 16일날 송담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전문가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아주대학교, 산업기술대학과 에너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강본부장의 말대로 앞으로 ESCO사업은 더 많은 기회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ESCO업계가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변화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 “ESCO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높아진 반면 ESCO사업에 대해 생소해하는 에너지사용자들을 위해 홍보활동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에너지대전이나 각종 에너지관련 전시회에 ESCO사업 안내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우수 ESCO사업에 대한 세미나 개최, ESCO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

지역별 정책설명회 참가, 공공기관 등의 설명회를 실시하고, 삼성전자 등의 민간 기업의 설명회 요청 등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월 국내 온실가스 자발적감축사업(KVER)의 개도국 보급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태국 방문을 통해 강원규 본부장은 ESCO해외진출이라는 숙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ESCO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으로 중국, 멕시코, 러시아, 태국 등 정부간 대화를 통해 ESCO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는 올해 9월경 에너지관리공단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한중 공동으로 ESCO진단 및 컨설팅 실시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정부간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ESCO사업 기반 마련은 민간융자금(구 ESCO펀드)을 1500억 중 300억 원을 지원해서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과 같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내 ESCO기업들이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ESCO업계와 함께 고민해서 국내 ESCO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강 본부장은 올해 중소기업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2011년 하반기 중소기업 ESCO예산이 300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조정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앞으로 중소기업 ESCO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강원규 본부장과의 만남에서 느낄 수 있었던 사실은 ESCO사업은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ESCO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변화, 에너지사용자의 인식변화, ESCO의 기술력향상 등 3가지 큰 변화의 물결과 강원규 본부장의 열정이 어우러져 곧 새로운 ESCO의 도약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힘차게 뻗어나갈 ESCO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본다.